

## [주일 말씀] 창조와 축복

2018. 7. 1. 이현래 목사님

성경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이 말씀은 다 외우실 것이다. 혹시 못 외우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 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인생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꼬집어내면 너무 복잡하다.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문화권에 따라서 다르고 인종에 따라서 다르다. 개별적으로도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도 사람마다 다르다.

그것을 다 털어 내놓으면 인간 숫자보다 훨씬 많다. 그것은 한 사람이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열배보다 더 많지 싶다. 지금 인구가 60억이니까 전체 문제는 600억 개가 넘을 것이다.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 같이 되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눈으로 보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겠는가? 성경은 “본래(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요1:18).”라고 말하고 있다. 너무 맞는 말이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1:18).”고 했는데 그 사람을 보고도 모르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왔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오히려 죽여버렸다. 이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겠는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이다. 다른 과의 하나님은 다 복잡하다. 회랍사람들은 관념적으로 생각 속에 있는 신이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많다.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생각해서 말을 하니깐 끝이 없고 결론도 없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나오기 전에 청년시

절이었다. 앞도 뒤도 다 막혀서 방황하던 시절이었다.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동네 예배당은 높은 곳에 있었다. 높은 언덕에 있어서 가려면 한 참을 갔었다. 올라가다 중간에 서서 내가 왜 올라가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 내가 하나님도 모르면서 어디를 가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몇 년 동안 알아보려고 내 나름대로는 애를 썼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도 모르겠고 책을 읽어봐도 모르고 그랬다. 그런데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

왜 그랬는지 몰랐다. 너무 갈 데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이 되어서 우주적인 신을 알려고 했던 내 자신이 너무 어리석고 비참하게 생각되었다. 알려고 했던 그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일이었다.

개미가 코끼리를 알려면 몇 년이나 걸려야 다 알겠는가? 개미가 코끼리를 다 더듬어서 알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다 알겠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전혀 모르고 안 보이는 것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지으신 이를 알겠느냐는 것이다. 잘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이 머리통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는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진흙을 주물주물해서 코에 숨을 불어 넣은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진흙을 가지고 둥글둥글 만들어서 콧구멍 만들어서 숨을 불어넣은 것이다. 알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니다.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우리는 굉장한 것 같다. 오늘 아침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인공위성을 띄워 어떤 특이한 별에 보냈는데, 3년 몇 개월이나 가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것이 상상이 되는가? 우리는 활을 쏘면 100m밖에 있는 물체도 맞추기 어려운데 3년을 넘게 목표물에 가서 정식으로 도착을 했다고 한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앞으로도 이 머리통에서는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런데 내일 일을 모른다. 그리고 자기를 모른다. 우리 속담에 등하불명이라는 재미있는 속담이 있다.

사람이 온 우주를 돌아다니고 하는데 자기는 모른다. 나는 우주를 돌아다닐지라도 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으신 이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지으신 이를 알려고 하면 저주이다.** 해도 해도 안 될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저주라고 한다. 시지프스 신화에서 말하고 있다. 아무리 올리고 또 올려도 올릴 수 없는 돌을 산꼭대기에 올려야 한다. 천신만고 끝에 올려놓으면 도로 떨어진다. 이것을 죽을 때까지 한다. 이것을 저주라고 한다.

**모를 것을 알려고 하면 저주이다.** 알 수 있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모를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저주이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한다고 알아지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더 한다고 알아지겠는가? 시대가 더 간다고 더 알아지겠는가?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갈수록 더 멀어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알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몇 년 동안 알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때 친구와 서로 밤을 새워 토론했다. 그 친구들은 다 신학교 다녔는데 답이 똑같았다. 믿어라. 그러면 안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냐? 모르니까 물어본 건데 밤새도록 믿으면 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때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었다. 그런 속에서도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생각했다. 꼭 누가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다. 그런데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환경으로 보면 완전히 궁지에 몰려서 올데갈데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래서 그랬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좌우지간 어쨌든지 간에 내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자를 알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낳았지만 부모와 떨어져 지내면 절대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창조자를 알겠는가? 그런데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이렇게 써놓았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알고 썼겠는가? 보고 썼겠는가? 신이 내려와서 써주었으면 모르겠지만 이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기록했다.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썼겠냐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여러 민족들이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이라는 그 존재에게 홀려서 다닐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말할 때는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신을 말한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물으니까 “I am ~.” 나는 “I am ~.”이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이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나는 ~이다.”이니까 말이 안 된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하든지 나는 돌이다 하든지 해야 하는데 “나는 ~이

다.”라고 하니까 이 말은 덜 된 말이고 덜 떨어진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말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히브리말은 자음을 써놓고 모음을 붙여놓은 글자인데 자음만 써놓고 모음을 붙여서 읽어보지 않아서 원래 어떻게 읽었는지 모른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 ‘여호와, 야웨’라고 할 뿐이지 그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들었던 말이 여호와인지 야웨인지 모른다. 그런 분이다.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희망이 넘치는 말이다. 모세를 부른 분은 “I am ~.”이니까 그 다음에 뭘 붙이기 따라서 달라진다. 나는 해방자다 하면 그분은 해방시키는 분이 된다. 나는 때리는 자다 하면 때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을 따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신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때로는 어디에 가서 빛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에 가서 진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이 되기도 한다. 뭐라고 딱 정해진 분이 아니고 그냥 “I am ~. 나는 ~이다.”이신 분이다.

**모세는 놀라운 분을 만난 것이다.** 내가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서 내 힘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오겠습니까? 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모세가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데 나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I am ~. 나는 ~이다.”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에이 말도 안 되는 분이네 하고 가버렸으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모세는 불꽃 중에 나타나신 분을 떠날 수 없었다. 무서워서 발이 붙어서 못 떠난 것이다.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이런 분이 나를 보낸다면 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나게 된 것이다.

바로에게 가 보라. 내가 “I am ~.”이니까 내가 따라갈게 했는데 모세는 내가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했다. 모세는 언변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네 언변 없는 것이 무슨 상관이나, 네 형이 말 잘하지 않느냐, 아론을 데리고 가면 된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났던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런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우리 조상들이 하늘님했기 때문에 하늘님이라는 개념이 더 많다. 희랍사람들이 들으면 데오스 개념이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분과 다르다. 말이 없으니까 희랍문화에서는 데오스가 되어버렸고, 영미문화권에서는 GOD이 되어 버렸고, 한국에 와서는 하늘님이 되었고, 일본에서는 가미사마가 되었다.

다 자기들대로 변질되었다. 데오스는 모세가 만났던 그분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데오스를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고, GOD을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는 것이다.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은 “나는 ~이다.”라고 말했고, 그분을 믿고 갔는데 바로가 굴복을 했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왔으며 광야 40년을 통과한 것이다. 그분이라는 뜻이다.

바로를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왔고 광야 40년 동안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했던 그런 분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다. 우리가 하늘님 할 때는 비를 내려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하는 그런 분을 하늘님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라고 할 때는 하늘님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그들을 인도했던 그분을 여호와라고 한다. 그분을 보통은 여호와라고 하기가 너무 경망스럽다고 해서 보통은 주님이라고 한다.

십계명 처음에 그렇게 못을 박아놓았다. “나는 너희를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아주 분명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신이 아니고 자기들의 역사를 만들어준 그런 신이다.

이런 분이니까 얼마나 그들은 자부심이 있냐는 것이다. 이방인들을 볼 때 우습게 보이는 것이 맞다. 이방인들은 보지도 못한 분을 신이라고 하고 모르는 분을 이러니저러니 하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이냐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이라고 무시했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게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 분에게 감사가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있구나. 내가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생겼다. 그전에는 모르니까 감사가 되지 않았다.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 교회를 가면 기도를 하는데 나는 대상이 없으니까 누구를 보고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기도를 할 수 없었다. 한번은 한 30명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뻘히 다 보이는 그런 교회였다. 갑자기 나를 보고 대표 기도를 하라고 시켰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얼마나 당황했던지 혼이 빠져나갔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행하는 행사를 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 모르겠거든 내가 하는 행사를 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는 행사를 모르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

### 1. 전능자가 사람을 창조하심.

우연설, 진화설은 저주이며, 기타의 어떤 설이 있어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일 뿐 인생을 복 되게 하는 말은 없음. 전능자가 창조했다는 말은 복의 근원임.

오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능자라는 말이다. 이름이 따로 없고 그냥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놔두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니까 사람을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면 또 좀 멀다. 나를 창조했다고 생각하면 가깝다. 전능자가 나를 창조했다.

여기에 대해서 창조냐 진화냐 우연이나 하는 것으로 시끄럽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창조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진화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다고 한다. 한참 논쟁하다가 안 되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진화를 배우고 있다.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모른다는 말이다. 모른다는 말이지 우연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진화했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있는데서 진화를 했지 없는데서 진화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창조라는 것은 없는 데서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말인데 이것을 굳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것을 보고 저주라고 생각한다. 내 인생이 만일 우연히 태어났다고 하면 저주이다.

인간은 이러지 말고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저주이다. 아버지 없이 우연히 태어났다는 것은 저주이다. 어떻게 우연히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것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진화설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나는 아메바에서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는 말이다. ‘인간은’이 아니고 ‘나는’ 하면 나는 내 조상이 아메바이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것은 내게 저주이다. 내가 돌아갈 곳은 아메바뿐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원숭이는 내 조상이다. 우리 할아버지이다. 나는 원숭이의 후손이다. 한 번 해보시기 바란다. 말만 해도 내게는 저주이다.

누가 나에게 와서 너는 아메바 새끼라고 하면 그것은 개 자식이라는 것보다 못하다. 개 자식이 낫지 또 원숭이 새끼라고 하면 얼마나 저주가 되겠는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번에 일본에서 쏘아올린 위성도 생명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생명의 기원이 밝혀져서 인간이 아메바에서 나왔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아메바 새끼라고 하면 저주이다.

아메바로부터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밝혀졌다고 하자. 그것이 맞다고 하자. 그것이 맞으면 너무 창피하고 저주스러운 일이니까 다 죽어야 할 정도이다. 그래서 그것이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나는 저주를 택하고 싶지 않다. 내가 살 동안이라도 축복을 택해야지 왜 저주를 택하느냐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갈멜산인가 어디에서 왼손에는 저주를 오른손에는 축복을 했다. 그러면 축복을 선포하는데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저주를 선포하는데 있어야 하는가? 왜 기어코 저주를 선포하는데 머리를 디밀고 들어가느냐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혹시 그것이 맞더라도 혹시 그것이 진리하고 하더라도 나는 거부하겠다. 그것이 변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가능하면 거기서 빠져나와서 도망치고 싶다. 축복을 선택해야 한다.

내 주장과 생각이 축복을 선택하자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많은 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 봤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다. 어떤 것이 나온다하더라도 그렇다. 전능자가 창조했다는 말 이외에 어떤 말도 저주 아니면 혼돈일 뿐이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내 인생은 시작이 안 된 것이다.** 그날 나에게 이 말씀이 확 들어와서 내 인생에 기점이 되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고 했을 때 기점이 있어야 거리를 알 수 있다. 기점이 없이 재면 재는 곳이 다를

때마다 결과가 달라진다.

철도 기점이라는 것이 있다. 거기서부터 재서 얼마라는 것이다. 우리교회 지을 때 보니까 측량사들이 와서 측량을 할 때 제일 먼저 기점을 찾아서 측량했다. 기점이 없이 측량할 수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기점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말할 수 있냐는 것이다.** 개든지 소든지 하여간 뭘 기점이 있어야지 기점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기점이 아메바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원숭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창조자를 택하지 않으면 복은 날아가고 영원히 없다.** 만일 창조자를 부인한다고 생각하면 복과는 상관이 없다고 알아야한다. 이 말은 복의 근원이다. **“창조자가 나를 창조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다.

나의 인생은 그렇다. 앞으로 과학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고 철학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른다. 모르지만 무엇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복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전능자가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은 놀라운 말이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다.

## 2. 창조는 축복임.

창조자는 전능자임으로 하나님이라 칭함. 창조자는 절대적 권위가 있음.

인생은 그 권위 아래 축복이 있음.

**창조는 축복이다.** 창조라는 말 자체가 축복이다. 전능자가 지었다. “I am ~.”이라는 분이 나를 지었다. 여기서 절대적 권위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권위다. 상대적으로 이것이 낫다거나 저것이 낫다고 할 수 없다. 이분이 아니면 나는 저주인데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나는 그날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아~ 나에게 창조자가 있구나. 나에게에는 전능자가 있구나. 나에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저주로 떨어지니까 다른 길이 없었다. **절대적 권위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권위도 절대적 권위이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는 말은 하나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골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선



택할 수 없는 것, 인간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창조 안에서 인생은 권위 아래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창조 안에서 우리는 권위 아래 있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까 그렇다. 나로 말미암아 된 내가 아니니까 나는 권위 아래 있는 것이다.

**이 우주는 지금 권위 아래 있다. 우리 인생은 전부 권위 아래 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고해도 권위 아래 있다.

공산주의의 마지막 희망은 무정부주의였다. 정부가 없는 세계였는데 이런 세계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정부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다. 영토와 국민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다.

주권은 정부에 있다. 권위가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일제 강점기 때 국민과 영토는 있었는데 주권이 없었다. 주권이 없다는 말은 권위가 없다는 말이니까 나라가 아니었다. 일본사람들이 마음대로 했다. 마음대로 한 일본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권위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다.

일본사람들이 중국사람들을 잡아다가 생체실험을 했다. 일본 731부대에서 했다. 인간을 잡아놓고 쥐 실험하듯이 했다. 주권이 없으니까 그랬던 것이다.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그렇다.

주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때는 국가가 아니었다.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주권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다. 좋은 나쁜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를 수립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다.

정부 수립을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을 해서 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우리는 권위 아래에 있다.

세상에 나가봐도 그렇다. 어디도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이 권위가 없는 곳이 없다. 어디를 가도 그렇다. 이것을 알면,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면 사회생활을 하기 쉽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가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지 모르면 천방지축이다. 그러면 쫓겨나게 마련이다. 아무리 노동조합이 있어도 쫓아내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어디에 취직을 하면 권위부터 알아야 한다. 그래야 거기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권위를 모르면 직장생활을 못한다. 우리 인간은 어떤 의미로든지 다 권위 아래에 있다. 권위를 무시하고서는 세상에도 있을 수가 없다.

미국에 가면 절대적으로 자유한 것 같다.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도 나라가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권위가 어디인가? 말 한 마디면 세상을 흔들 것 같다.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나라가 흔들흔들 하는 것이다. 그것이 다 권위다. 권세다.

**우리는 지금 신성한 권위 아래에 있다. 이것이 축복이다.** 만일 우리가 악한 권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러면 우리는 저주이다. 그런데 신성한 권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창조다. 신성한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러니까 축복이다.

세상에는 완전한 권세가 없다. 그래서 완전한 권세가 아닌 곳에 굴복하려니까 힘이 드는 것이다. 만물이 탄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기를 원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허무한 권세에 굴복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에 대해서 권위자가 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개도 아주 대우를 받는 개가 있고 아주 비참한 개도 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보신탕을 금지하자고 데모를 했다. 사육용으로 키우는 개를 보면 비참하다. 집안에서 호강하고 있는 개와 비교할 때 목장에서 키우고 있는 개를 보면 비참하다.

인간도 그럴 수 있다. 북한에 가 보면 정신병동이라는 곳을 보면 짐승이나 똑 같다. 죽으나 사나 관계가 없다. 빨리 죽었으면 한다.

**우리가 참된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게 되면 다른 권위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어차피 권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면 권세가 없는 줄로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어느 권세를 만나도 역시 권세를 만난다.

여자가 남편이 답답해서 이혼을 한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면 되지만 결혼을 하면 또 남편이 있다. 그 지긋지긋한 남편이 또 있다. 이혼하고 보니까 그런 남편이 또 있다.

오죽하면 일곱 남편을 찾아 다녔겠는가? 성경에 일곱 남편을 찾아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자는 어차피 남편이 있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남자도 그렇다. 다시 태어난다면 저 여자와 안 살고 싶다. 그런데 장가를 가면 또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신성한 권위 아래, 참된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

나는 이 권위 아래에 있으면서부터 내 인생이 조용해졌다. 이 권위를 모를 때는 속에서 시끄러웠다.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속으로는 시끄러웠는데 이 권위를 알고 나니까 조용해졌다.

심지어는 내가 불의의 권위에도 고개를 숙일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살아야 되니까. 안 살면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살아야 되니까 불의의 권세라도 내가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얼어맞거나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깐 그렇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박\*\*가 1년이나 갇혀 있는 것을 보라. 이\*\* 도 1년이나 갇혀 있는 것을 보라. 더 큰 권세에게 잡혀서 그렇다. 잡아 놓으니깐 꼼짝 못한다. 어제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잡아 놓으니깐 꼼짝을 못한다. 왜 그런가? 권세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만일 그런 권세 아래에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가!

그런데 우리는 비록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참된 권세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창조 아래에 있으니깐. 나를 지으신 이가 있으니깐 나는 참된 권세 아래에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다. 세상이 다 허물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참된 권세 아래에 있다.

### **3. 창조는 계획과 목표가 있으므로 축복임.**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자신의 상속자가 되게 함.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계획과 목표가 있다. 이 계획과 목표가 우리에게서 축복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창1:26).”** 이 말은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창조자 자신을 이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해 보라.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분을 대변한다, 대신한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디만 한다고 하더라도 100년 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100년 산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 마디하고 하루를 살다 죽는 것이 낫다. 얼마나 큰 영광인가! 흠으로 지어진 인생인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표현한다. 그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 영광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이 부럽지 아니한다. 부럽지 않고 세상의 영광 앞에서 꿀리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고 복종한다고 해도 내가 전혀 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에 의해서 내가 끌려 다닌다고 하더라도 힘이 없으니까 끌려 다녀야 한다. 그럴 지라도 나는 참된 계획을 가지신 분 안에 있다. 이것은 얼마나 축복인가!

**창조를 생각하면 절절히 축복이다. 축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한 시간에 다 할 수 없고 평생을 해야 한다.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만 몇 개 뽑을까? 그렇게 고심을 했다.

하나님은 목표와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다. 나는 이런 분에게 붙잡혔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다. 감사하다.

#### **4.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심.**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의 충만한 생명으로 만물을 축복하라는 것임.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다스리라고 하셨다.

여기서 충만하라 정복하고 지배하며 다스리라는 말을 서양 사람들은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해석하였다. 그래서 자연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동양 사람들은 자연과 동화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인간은 자연과 하나니까 자연과 동화해서 살아야 된다. 자연 순응주의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여기서 순천자라는 말은 자연 순응이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인간에게 자연의 모든 것을 맡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파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에 가서 시커먼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것은 원숭이나 다름 바가 없다.

그래서 목을 묶어서 잡아다가 노예선으로 싣고 와서 경매에 붙이고 그랬다. 꼭 동물시장처럼 그렇게 하였다. 이런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해석한

것이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랬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그것을 분배하라는 것이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말은 폭군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분배한다는 말이다.

만물은 사람으로 인해 축복을 받는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죽는 것이고 망신당하는 것이고 사람을 잘 만나면 축복을 받는 것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개도 사람을 잘 만나면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사람을 잘못 만나면 보신탄감이 된다. 사람을 만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너는 **만물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분배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분배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분배할 때 우리는 만물로부터 존경을 받을 게 아니겠는가? 그러면 만물이 탄식하지 않을 것이다.

왜 저놈의 인간들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는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인간들을 잘 만나서 내가 호강하고 있네, 이렇게 될 게 아니겠는가? 그러면 ‘인간 환영’이라고 동물의 세계에서 상장을 줄 것이 아니겠는가? 표창장이 아니면 감사장 이런 것을 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인간 악종들, 저놈들은 언제 망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우리는 만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만물에게까지 욕을 얻어먹는 인간이 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사람에게도 욕을 먹으면 안 된다. 사람도 ‘인간이 저런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가?

볼 때마다 기쁘고 볼 때마다 감사하고 볼 때마다 좋고 이러해야 된다. 저 인간은 안 봤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쓰겠다. 이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잘 생각해 보라.

조금이라도 남에게 불쾌하게 하는 일은 안 해야 된다. 남에게 불쾌하게 하면 그만큼 나에게 돌아온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내가 한 사람을 괴롭게 하면 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

왜냐하면 그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 가서 다 퍼뜨린다. 열 명에게 퍼뜨리면 열

명이 다 나를 괴롭게 할 게 아닌가? 모르고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알고는 절대로 남에게 원수질 일을 하면 안 된다. 알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알고 하면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것이다. 남을 괴롭게 하면 내가 괴로움을 받는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남을 괴롭게 하면 그 사람은 내가 더 큰 이익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장사를 해도 나만 장사를 해 먹으면 될 것 같다. 안 그렇다. 고객을 내가 도와주어야만 장사를 잘하게 된다. 이\*철씨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기업을 잘 키웠습니까? 그가 하는 말을 절절히 들어보라. 귀신이 아닌가. 제품을 하나 만들려면 좋은 물자가 있어야 됩니다.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좀 많이 주면 좋은 물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기술자를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조금 더 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팔아 주어야 할 게 아닌가? 서로 삼성 제품을 팔아주려고 하는 대리점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회사 보다 이익을 좀 더 주면 됩니다. 소비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는 조금 더 싸게 해 주면 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 자기 먹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돈을 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한다.

내가 남에게 이익을 줘야 남도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지 내 이익만 취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안 온다. 나쁜 사과만 먼저 골라 파는 사람에게는 안 간다. 좋은 사과만 골라 파는 사람에게는 또 찾아 간다. 이 사람은 성심껏 해 주는구나.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골라 준다고 생각하면 그 집에 가고 싶다.

돈도 억지로 벌 수 없다. 줄 만큼 주고 벌어야 된다. 나 혼자 다 벌어먹을 수가 없다. 나눠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나누어 먹을 생각을 하면 된다.

내가 그때 누구를 보고 그랬다. 한 번 그런 일로 왔길래 이 녀석아 네가 돈을 벌어먹었으면 값을 좀 내야지 그냥 공짜로 너 혼자 돈 벌어먹을 생각을 했느냐고 오히려 내가 뭐라고 했다. 막 원망을 하고 왔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다. 옛날 이야기이다. 분노가 차서 왔다. 그래서 이 녀석아 너도 돈 벌어먹었으면 좀 내 놓아야 되잖아. 돈을 벌게 해준 사람에게 좀 내 놓아야 되잖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잘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다. 남에게 이익을 주어야 나도 이익을 받는다. 전적으로

다 내가 챙기지는 못한다. 밭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할 때도 밭에 뭘 좀 남겨두고 와야 한다. 짚단이라도 두고 와야 한다.

다 굶어 와 버리면 땅이 허전할 것이 아닌가? 1년 동안 내게서 농사를 지으면서 내 먹을 것은 하나도 안 주고 저 무정한 주인이 다 굶어 갔네, 그럴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땅이 좋은 소출을 내 주겠는가? 다른 비료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온 것만 줘도 땅이 좋아진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논에서 나온 짚만 그 논에 넣어 주고 다른 비료를 안 해도 농사가 잘된다고 한다. 다 돌려주어야 돌려받는다. 혼자 다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눠 먹고 산다고 생각해야 된다. 말이 좀 빗나간 것 같다.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다. 우리는 만물도 축복해야 한다.** 밭도 축복하고 감나무도 축복해야지 감을 제대로 먹는다.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어떤 해는 감이 계속해서 떨어진다. 더구나 장마가 지면 다 커서 떨어진다.

감은 수분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 자기 스스로 떨어뜨려 버린다. 그렇다고 어디에 가 보니까 감나무 밑을 칼로 도려 놓았다. 수분이 못 올라오도록 말이다. 이것은 너무너무 잔인한 짓이다. 봄에 황 소독 한 번 해 주면 안 떨어진다. 냄새는 좀 나지만 감이 안 떨어진다. 장마가 저도 안 떨어진다. 신기하다.

나무를 위해 주어야 나무도 나에게 돌려준다. 나무가 잘못한다고 칼로 도려서 물을 못 올라오게 해주면 감나무가 나에게 제대로 돌려주겠는가? 뭐든지 그렇다. 뭐든지 내가 좀 돌려줘야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에게 만물을 축복하라고 했다.** 모든 것을 축복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내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야 축복을 하지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축복을 못 한다.

시집살이를 되게 한 사람은 자기도 되게 시집살이 시키는 것이다. 내가 고생고생해서 시집살이를 했다. 그래서 그때는 나는 절대로 안 그래야지 한다. 다음에 가서 보는데 며느리가 너무 편하게 있는 것을 보면 속에서 꼬라지가 난다는 말이다.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편하면서 뭐가 불만이냐? 이런 소리가 나온다. 사람이 그렇다. 고생을 하게 되면 남이 편한 것을 보기 어렵다. 나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편안하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나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이렇게 편하라는 생각이 안 된다.

자식에게만 그런 생각이 안 든다.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잘 살아야 된다. 나는 어려웠지만 너는 평안해야 된다. 이것은 자식에게만 그렇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자녀가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이다.

인간이 얼마나 매 말랐으면 사돈이 눈을 사는 게 배가 아프겠는가? 사돈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나는 그런 말이 그냥 정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 사돈이 눈을 사면 실제로 배가 아픈 사람이 있다. 실제로 그렇다. 이것은 정신과적인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다. 남이 잘되면 배가 아프다.

얼마나 복을 못 받았으면 그랬겠는가? 인간도 생각해 보면 복을 넘치도록 받아야 한다. 받아야 줄 수가 있지 안 받고 주려고 하면 안 된다. 안 받고 주려고만 하면 자기 본전 생각이 날 게 아닌가? 그래서 안 된다.

나는 가난할지라도 옆에 사람이 잘되는 것을 보면 막 기쁘다. 이렇게 되면 성인 군자가 된 것이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저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일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내 보화는 하늘에 있으니까. 내 보화는 다른 것이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나는 가난한 데 옆에 사람이 잘 돼 보라.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꼭 꼬여서 가슴이 안 아프면 배가 아프게 된다.

하여튼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육신의 축복은 받아도 안 된다. 하늘의 축복을 받으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복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들이 뼈다귀를 가지고 싸우는 데 소가 그것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저것들 이상하네. 먹을 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왜 싸우는가? 그렇게 생각이 안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세상의 축복을 보면 잘 됐다고 칭찬해 줄 수가 있다. 플랜카드까지는 못해도 박수는 쳐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좋은 것이니까. 내 복이 있으니까. 좀이 슬지 않고 동록이 먹지 않는 복이 있다는 말이다. 다른 복이 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다.

**창조가 축복이라고 알면 우리는 즉시 부유해진다.** 웅색한 사람이 안 된다. 내가 돈이 많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겠는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돈 생긴다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축복이 있어야, 신령한 축복이 있어야 나보다 더 잘 되어도 내가 축하할



수 있다. 형제간도 그렇다. 형님이 더 잘 산다든지 동생이 잘 산다든지 그러면 시기가 난다고 한다.

부모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 세상에서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다. 부모만은 자식이 자기보다 더 잘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그런데 형제간도 그게 안 된다고 한다. 나는 형제간이 없어서 모르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한다.

왜 그런가? 진짜 복이 없으니까 그렇다. 나도 형님에게 한 번 당했다. 비참한 일을 당했다. 평생 그것을 못 잊을 줄 알았다. 너무나도 내가 암담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다. 내가 형님에게 갔다 나오면서 하늘이 노랗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하늘이 노랬다.

30리 길을 걸어가야 되는 데 그것은 문제가 안 되었다.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니는 기다리고 계신다. 돈을 얻으러 갔다가 맨 손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부두에서 우리 집까지는 100m 밖에 안 된다.

그 길이 얼마나 긴지 몰랐다. 그 길이 그냥 길이 아니고 양 쪽에 상가가 쪽 있는 길이다. 다 나를 보고 있다. 거기를 통과하는 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른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빈손으로 들어오니 아무 말도 없으시고 그냥 계셨다.

형제간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그때 그렇게 해 준 것이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때 만일 조금 도와주었더라면 나는 그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다가 잘 됐을지 못 됐을지 모르지만 잘 됐어도 복이 안 되고 못 됐어도 복이 안 됐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다른 복이 딱 오니까 이 복을 주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모든 것이 해방 되었다.

내가 교단에서 4년 동안을 시달리다가 C.C.C.에 들어가서 느낀 것이 그것이다. 아! 내게 이 복을 받게 하려고 거기서 나를 밀어냈구나. 밀어내 준 사람들이 고맙게 느껴진 것이다.

그때 만일 밀어내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생각해도 암담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어려운 인생을 거기서 싸우면서 말이다. 그 지긋지긋하게 미웠던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가 되었다. 다른 것을 받으니까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나를 그렇게 할 것이 없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이 한 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 모든 것이 풀리는 것 같았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풀리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야만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넉넉해져야 축복을 한다. 엄마가 잘 먹어야 젖을 잘 줄 수가 있지 엄마가 굶고 있는데 젖이 나오겠는가? 안 나온다.

내가 교역자 집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줄 것이 넉넉해야지 줄 것이 없으면 무엇을 주겠는가? 나는 8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무엇을 주었는지 모르겠다. 미안해 죽겠다. 뭘 한다고 애를 썼는데 아무 것도 준 것이 없다.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복을 받았지만 나는 정말 안 될 짓을 했 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 5. 산 혼이 되게 하여 하나님 말씀의 발이 되게 하심

산 혼은 흠에 씨를 뿌리면 발이 되는 것 같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번식하는 농부가 됨.

산 혼이 되게 하여 하나님 말씀의 발이 되게 하였다. 사람을 산 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흠이나 마찬가지로. 흠으로 빚어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니까 산 혼이 되었다고 한다.

이 산 혼은 인간의 오감이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이런 기능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발이다. 이것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훨씬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만나면 그것을 말씀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혼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사람 속에 영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으로 창조했다는 말을 나는 성경에서 못 봤다. 영을 주신다는 말은 있다. 사람이 영이라는 말은 없다.

그런데 사람 속에 영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테나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 속에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접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하나님이 그런 안테나를 주었으면 아담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나왔겠는가? 안테나가 고장 났는가.

아담은 순전히 자기의 혼으로 판단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혼으로 판단했다. 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영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없다.

사람은 밭이다. 역시 흙이다. 씨를 뿌리면 밭이 된다. 만일 씨를 받지 못하면 흙이지만 씨를 받으면 밭이 된다.

여기서 어느 씨를 받느냐에 따라서 밭의 종류가 결정된다. 콩을 받았으면 콩 밭이 되고, 고구마를 받았으면 고구마 밭이 된다. 흙은 똑 같은 흙인데 콩 밭도 되고 고구마 밭도 된다.

내가 살던 지방에는 이모작을 한다. 밭에서 보리를 베고 나면 고구마를 심는다. 가을에 추수를 한다. 흙은 똑같은 흙인데 지금은 보리가 나오고, 가을에 가면 고구마가 나온다. 씨를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 인간이다. 씨를 잘못 받으면 망하는 것이고, 씨를 잘 받으면 흥한다.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이다. 씨를 무엇을 받느냐는 말인데, 이 씨는 무엇인가? 말씀이다. 우리말에 이상한 속담이 있다. 말이 씨 된다는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씨다.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해놓으면 이 사람에게 씨가 된다. 그 사람 욕을 해놓으면 그 사람 속에서 욕이 자란다. 내가 누구를 욕하면 욕이 그 사람 속에서 씨가 되어서 부글부글 자란다. 그냥 지나가고 없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욕이 남아서 계속 자란다. 언젠가는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인간은 밭이다.** 이 밭을 놓고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밭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들어갈 수 없다. 부득이 하나님은 사람을 밭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밭으로 만든 것이 우리에게서 축복이다. 하나님에게로 가면 축복이 되고, 사탄에게 가면 저주가 된다. 사탄의 말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가? 잘 받아들여서 잘 재배한다. 한 톨을 받아서 열 톨을 내놓는다. 사람은 이상한 존재이다.

밭이 씨를 1되를 뿌려놓으면 가을에 가면 한 가마니가 나온다. 혼이라는 것이 신기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느냐,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가면 천지차이가 난다.

고구마 밭에서 보리가 나올 수는 없다. 고구마를 받아서 보리가 되는가? 안 된다. 보리를 받아서 고구마가 되는가? 절대로 안 된다. 밭은 씨를 받는 대로 되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별 수 없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려버리면 가라지가 되어버린다.

합리주의자들은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담은 이성이 없었는가? 아담이 이성이 없어서 선악과를 먹었는가? 그렇지 않다. 이성으로 판단해 보았는데,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창3:6).**”이기 때문에 먹었다.

아담이 이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이성으로 판단한 것이 그렇게 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순수이성이 아니라 무슨 이성을 만들어 놓아도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와서 속여 버리면 그냥 속는다. 나보다 큰 자가 속이면 속은 줄도 모르고 속는다. 속는 줄 알면 누가 속는가?

아담이 만약 알았더라면 선악과를 먹겠는가? 먹지 않는다. 사기꾼에게 왜 사기를 당하는가? 사기꾼이 나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다. 내가 당했다면 나는 IQ가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할 수 없이 내가 당하는 것이다. 멋모르고 당한다. 아주 기쁘게 당할 수도 있고, 희망을 가지고 당할 수도 있다.

장기나 바둑을 두어 본 사람은 잘 안다. 빨리 보면서도 안 된다. 나보다 고수와 바둑을 두면 빨리 보는데도 안 된다. 역력히 보고 있다. 헛눈 팔아서 진 것이 아니다. 아주 분명하게 보고 있는데 지는 것이다. 어떻게 하니까 싹 죽는다. 왜 죽는지도 모른다.

대구 권\*\*형제 삼촌이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분인 모양이다. 왜 유명한가? 주먹이 얼마나 빠른지 언제 들어와서 때렸는지를 모른다고 한다. 맞은 사람이 맞고도 언제 맞았는지 모른다고 한다. 지금도 살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유명한 삼촌이 있다.

진짜 고수를 만나면 나는 모른다. 알 것 같지만 내가 명석하게 정신을 차리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영역을 바꾸어야 되지 그 세계 안에 있으면서 내가 지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바둑판에서 내내 져서 이기지 못하겠거든 바둑판을 떠나야 된다. 증권을 해서 안 되면 증권시장을 떠나야 되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증권을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안 된다.

증권시장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은 자기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이 다 그렇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제일 멍청한 사람이다. 결과적으로 멍청하니까 돈을 잃은 것이다. 지혜로우면 잃겠는가? 잃지 않는다.

사람이 뭘 안다는 것이 알고 보면 우스운 것이다. 너무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된다. 자기 자신에게 기대하면 안 된다.

## 6. 위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의 농부가 됨.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영역이고,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영농하는 것임. 하나님은 씨를 주시고 사람은 그 씨를 받아서 밭이 됨)

사람은 말씀을 번식시키는 농부이고 흙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고 만들어 놓았지 사탄의 말씀을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속이면 할 수 없이 속는다.

그러므로 내가 영역을 바꾸어야 한다. 동산으로 영역을 바꾸어야 한다.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꾸어야 한다. 교회로 바꾸어야 한다. 내 세계를 교회로 바꾸어야 한다.

애굽에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 공경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겠는가?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다.

바로가 모세에게 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느냐고 물으니 모세가 우리 백성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인데 한 사흘 길 쯤 나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바로가 하는 말이 사흘 길 쯤 나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 뭐가 있느냐, 여기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아닙니다, 꼭 사흘 길 쯤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

바로가 자기 머리로 생각할 때, 분명히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열 번째 재앙이 오니까 할 수 없이 손을 들었다.

나오지 않으면 경배를 할 수가 없다. 그 속에서 하면 이 전투구라고 진흙 밭에서 게들이 싸우면 상대방 물어뜯는 것만 생각하지 자기 몸에 진흙이 묻는 것은 모른다.

피플테리아라는 개를 보면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개 같다. 어디를 가도 개만 보면 싸운다.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가 하면 싸우다가 지치면 둘이 서로 기대고 드러눕는다. 쉬고 또 물어뜯고 싸운다. 한 놈이 죽을 때까지 싸운다. 팔자가 고약하다. 어찌 싸우다가 죽게 만들어 놓았나. 길을 그렇게 들여서 그런 것인지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만 보면 이유 불문하

고 무차별로 죽을 때까지 물어뜯는다.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자고 한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 우리가 좋은 밭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이 그래도 아무리 해도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개판 보다는 낫다. 순모임 가면 누가 어떻고 해도 그래도 다른 데보다 낫다. 그래도 진실하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이다. 여러분이 순모임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거짓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그만해도 얼마나 좋은 세계인가. 얼마나 다른 세계인가. 사기꾼 없는 것만 해도 우리 복이다.

**좋은 땅에 사는 것이 복이다.** 좋은 영역에 사람을 지어서 동산에 두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산이다. 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동산이다.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그 동산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서 만나겠는가? 어떤 사람은 우주적 교회에서 다 했다고 하지만 그것과 교회에서 만나는 것은 다르다. 교회 안에서 만난 하나님이라야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지, 사람도 없는 저 공중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잘못하면 또라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막연한 분이 아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구체적인 하나님이다. 우리가 살면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눈으로 보는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공중의 하나님을 만나겠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이런 사람을 보고도 안 됐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겠는가? 옆에 두고도 못 찾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겠는가.

나는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한 번 해보시기 바란다. 그 전에 청주에서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교회는 오지 않는다. 교회가 없이 믿는 사람은 다 교회라는 주장이다. 그런 교회를 보고 우주적 교회라고 한다.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들끼리 전화도 하는데,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다. 가끔 연락이 오는데 교회는 오지 않고 그런 식으로 교제만 하려고 한다.

책도 그 계통에 나와 있는 책이 많이 있다. 가끔 전화가 오는데, 내가 좀 더 끌

려고 하다가 이야기를 해버렸다. 교회 없이 예수를 알 수 없다. 교회 안에 예수가 있지 교회가 없이 예수를 알기를 어렵다고 했더니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청주 사는 사람이라는 것밖에 모르니까 지금 찾아보고 싶은데 안 된다. 혹시 방송을 보고 있으면 나에게 연락을 해주기를 바란다. 단지 교회 모임만 하지 않는다.

Local church, 지역교회, 구체적으로 사람이 만나는 교회만 오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안다거나 예수를 아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예수, 자기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한다.

내 속에서 뭐라고 말했다거나 내 속사람이 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 계통에 유명한 분들이 또 있다. 속생명파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속생명에서 말씀할 때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속생명이 말하면 나와서 이야기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신령하지만 도로 그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속생명이 다르고 겉생명이 다르게 되겠는가? 알고 보면 속는 것이다. 속생명이 다르고 겉생명이 다르다면 이중인격자이다.

순모임에서 그런 소리를 하다가는 환영받지 못한다. 속생명에서 말하기 때문이라거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라고 한다거나 왜 그런 간지러운 짓을 하는가. 자기가 말하면서 속생명이 말한다고 한다거나 속에서 성령이 와서 말한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말하게 해서 한다는 등 닭살 돋는 이야기를 한다.

언제 한번 누가 와서 옆에 와서 앉더니 ‘오~ 주 예수여~’ 하길래 내가 민망하게 무안을 주었다. 사람을 만나러 왔으면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지 당신 혼자 ‘오~ 주 예수여~’하고 있으면 나는 뭐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했다.

나를 만나러 왔으면 나에게 뭘 말해야지 자기 혼자 앉아서 ‘오~ 주 예수여~’ 하는데 뭐 하는 짓인지 옆에 사람 두고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우스운 짓을 하면 안 된다. 정상적인 인간으로 자기 생각을 말해야 된다.

그 인간이 변해야 되지 것이지 속만 변하고 겉은 변하지 않는 이런 인간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되면 괴물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은데, 심하게 말하면 괴물이다. 사람은 그냥 사람이지만 속 다르고 겉 다른가.

## 7. 생명의 연합으로 위임을 수행하게 하심.

아담은 깊이 잠들어서 하와를 얻었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진실을 밝히심으로 거짓말 하는 자에게 속아서 그의 종이 된 인류를 구속하고 배필로써 교회를 얻었음. 그러므로 교회는 완전한 생명의 연합체임.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은 그리스도와 교회로 완성 됨.

그래서 연합이 필요하다. 씨를 받는 발인데, 하나님의 경륜을 결정적으로 수행하려면 혼자 안 되고 연합으로 해야 된다. 창세기 2장의 마지막이 연합이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창2:24).**” 둘이 연합해야 된다. 혼자가 아니고, 혼자 신앙이 아니고, 혼자 믿음이 아니고, 연합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증거를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증거를 받겠는가? 자기 혼자 하나님이 어디 있다거나 꿈에 봤다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 되겠는가? 연합해야 된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혼자 하나가 되면 안 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와 같이 그들도(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1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요17:21).**”이다.

분명하다. 하나님 경륜의 수행을 위해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합해서 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혼자 하는 것은 잠꼬대에 불과하다. 자기 혼자만 하는 일이라면 꿈꾸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이 알겠는가? 나는 밤에 꿈을 많이 꾸는데 내가 꿈을 꾸고도 아침이면 잊어버린다.

아침까지 기억되는 꿈은 드물다. 나는 그렇다. 하물며 남이 내 꿈을 어떻게 알겠는가? 사람 말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귀신 말을 알아듣겠는가?

**둘이 연합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고,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면 생명이 된다. 새 생명도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와 내가 합해지면 그것이 새 생명이다.**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자꾸 이야기하는가? 그분과 밖에는 내가 연합할 수가 없다. 예수를 비하시키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데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찾아다녔는가? 나와 연합할 배필을 찾았다. 내가 아브라함을 왜 좋아했는가? 지금 생각해보니 아브라함을 옛날에 알기는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만 알았다. 그러니까 친근감이 없다. 왜?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안 된다.

내가 언제 아브라함만한 믿음을 가질까? 이런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왜 내가 아브라함에게 잡혔는가? 마지막에 10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다. 의롭다 함을 받은 믿음도 다 사라지고 없었다.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한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거기서 내가 딱 연합이 되었다. 그것이 나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것이 나다.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나 자신이다. 그래서 이삭을 얻었다.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로잡힌 것 같다.

맨 처음에 워치만니의 <주의 형상을 닮아>라는 책을 읽을 때, 첫 번째 부딪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딱 부딪쳤다.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도 없어져 버린 사람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무 믿음이 없는 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희망이 생겼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믿음, 믿음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아니까 희망이 생겼다.

이삭도 마찬가지로이다. 모리야 산에 죽을 자리까지 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았다. 그 말을 들으니까 희망이 생겼다.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데서는 내가 딱 길이 막히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데서는 내가 딱 길이 막히는데, 하나님이 그 안 될 것을 됐다고 하는데 가서는 길이 탁 열렸다.

야곱도 마찬가지로이다. 내가 왜 야곱을 좋아했는가? 야곱은 정말 안 될 사람이다. 끝까지 꾀만 부릴 사람이다. 그런 야곱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거기서 희망이 생겼다.

내가 비록 아무리 철이 없고 내가 아무리 내 잔꾀를 부리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면 되겠구나. 이런 희망이 생겼다.

나는 그 책을 3번이나 읽었다. 왜 3번을 읽었겠는가? 공부하려고 읽었겠는가? 내 자신을 다지려고 읽었다. 그 세 사람 속에서 내가 다져졌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

지 못하는 그 사람이다.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사람이다. 묶여서 제단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이다.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이 바로 예수이다.

길을 얼마나 잘 왔는지 모르겠다. 그 길로 딱 들어서니까 그런 사람만 짝 보였다. 모세가 80세에 부름 받았다는 것도 다 같은 사람이다.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과 80세에 부름 받았다는 것은 다 똑같은 일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다 한 사람이다. 나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만 찾아다닌 것 같다. 마지막에 보니까 딱 예수이다. 그냥 놓고 예수를 알 수는 없다.

노선을 잘 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이런 노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은 것이 아니다.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 그 노선을 딱 보여주니까 이것이 축복의 노선이구나.

**창세기 1장 1절이 맨 처음 나에게 내 인생의 길을 돌려준 말씀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내 인생의 기반이 되어준 사람들이다. 길이 되었다. 그 길을 가보니까 예수이다. 알고 보면 나는 그때 예수를 만났던 것이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를 만났던 것이다.**

**우리가 다 그 노선 안에 있으면 결국은 예수를 만나게 된다.** 다른 노선에서는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호남선을 타고 부산에 갈 수 있는가? 못 간다. 호남선을 타고 부산을 못 간다. 아무리 좋은 KTX가 아니라 STX를 타도 부산을 못 간다. 경부선을 타야 된다.

경상도 말을 들으려고 하면 경부선을 타야 된다. 참 재미있다. 서울에서 경부선을 타면 대전까지는 대구사람들이 조용하다. 대전을 딱 넘어가면 경상도 사투리가 나온다.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 버린다.

마찬가지이다. 호남선을 타면 대전까지는 조용하다. 서로 책잡히지 않으려고 말을 하지 않는다. 대전을 딱 지나면 전라도 사투리가 나온다. 열차 안에서 호남 분위기가 확 난다.

**노선을 어디로 타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노선, 그것은 예수의 노선이다. 이삭의 노선, 야곱의 노선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그 길로 예수가 오기 때문이다. 그 길이 아니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

예수가 아무데나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도 아무데나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데가 따로 있다. 그 노선을 타야 하나님을 만나지 다른 노선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못 만난다. 아무리 논의를 해보았자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다. 지성소에 계신다.** 다른 데 가서 아무리 두드려보라. 계시는가?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아무리 문을 열어보라. 하나님이 계시는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무리 구해보라. 예수가 오는가? 오지 않는다. 구할 데 가서 구해야 되고, 두드릴 데 가서 두드려야 된다.

밤중에 아무데나 가서 봉창을 두드리면 되겠는가? 정령자매가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때, 밤중에 봉창 두드린다고 한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한다.

두드릴 데 가서 두드려야 되고, 구할 데 가서 구해야 되지 다른 길에 가서 구하면 없다. 바다에 가서 범을 구하면 잡겠는가? 산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오겠는가? 있을 데 가서 해야 된다.

**교회를 왜 오는가?** 아무리 교회가 시시해 보여도 노선이 있다. 골라잡아도 된다. 길에도 가다 보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기 마련이다. 딱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을 만날 때도 아브라함만 있었는가? 아니다.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한 명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하고 쪽 나오는데 얼마나 자식들이 많은지 모른다. 그 많은 자식들 중에 이삭이다.

아랍사람에게 물으니까 아브라함만 알지 이삭은 전혀 모른다. 대가 끊겨 버렸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잘못 본 것이다. 다른 것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모슬렘이 되어 버렸다.

이쪽은 이삭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삭의 노선이다. 이삭으로 말미암아야만 내 후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계열이 김씨 집안에 시집을 가야 김씨 아들을 낳는 것이지 이씨 집안에 시집을 가서 김씨 아들을 낳겠는가? 안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딱 여기에 달을 내려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찌 하는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거기에 달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넘어지고 아파지고 해보아야지

다른데 돌아다녀보았자 안 된다. 닳은 거기에 내려놓고 좌우지간 거기서 끝장을 봐야 된다.

이보다 더 축복된 말씀이 없다. 전능자가 너를 창조했다. 전능자가 나를 창조했다. 이보다 더 축복된 말이 어디 있겠는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자기 스스로 저주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찾아가는 것이다.

**창조는 축복이다.** 진화냐 이런 것이 아니다.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이다. 창조는 축복이다. 없는 데서 있게 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 “I am ~.”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 “나는 ~이다.” “I am ~, that I am ~.”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 뭐라고 이름 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오늘 우리도 “I am ~.” 그분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교회에 오면 순모임에서 서로 간증을 듣는다. 가능하면 순모임에서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텍스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자기 말을 해야 된다. 책만 읽고 설명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자기 집에서 하면 된다. 자기가 충분히 읽어서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 되면 그것을 내 놓아야 한다. 그러면 모임이 얼마나 풍성해지겠는가. 어떤 모임은 풍성하고 어떤 모임은 풍성하지 못하고 그렇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다. 읽어보지도 않았지 와서 할 말은 없으니까 줄줄 읽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면 판을 버린다. 귀한 시간을 버리는 것이다. 충분히 읽어야 한다. 읽어보고 거기서 자기에게 은혜가 되면, 축복이 되면 그것을 내가 내놓아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들었지만 다 각각이다. 자기가 받는 축복은 다 다르다. 그것을 시간만 있으면 다 내놓는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는가.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서, 그것이 우리가 교통하는 이유다.

그런데 책만 읽으려고 하면 읽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성경만 읽는 것이나 매한가지이다. 내가 여기서 성경만 읽고 내려가면 어찌겠는가? 여러분이 좋다고 하겠는가? 오늘 정통으로 들었다. 우리 목사님은 진짜로 정통이다. 이렇게 하고 가겠는가?

성경만 읽으면 그것이 진짜 정통이다. 내가 젊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는 하지 않고 성경만 읽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족을 부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것이 진짜라는 생각을 했다.

잘못했으면 그렇게 할 뻔 했다.

성경을 읽으려면 자기 혼자 읽으면 되지 교회 와서 읽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풍성한 교동이 있기를 바란다. 좀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내놓아라. 나는 은혜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고 하면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살고 와라. 잘 살고 간증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

오늘 대표적인 한 사람을 간증을 시키려고 한다. 시간이 모자라지만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별이 하나 있다. 그래서 저만 듣기는 너무 아깝고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 나오면 큰 박수로 환영해주길 바란다. 류\*일이다. 어제 저녁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아까워서 오늘 좀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 <류\*일 형제 간증>

내 인생이 바뀌었다. 왜 바뀌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점점 갈수록 나로 보인다. 이 분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장차도 있을 분이다. 이 사람을 알고 나서 내 인생에 안식이 왔다. 모든 분요함이 다 떠났다. 너무 인생이 안정이 되고 너무 조용해졌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 것은 시시한 것이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몰랐기 때문에 돈도 벌어서 좋은 것도 해 보고 다 해봤지만 이 사람하고 합하는 것 외에는 좋은 것이 없다. 나에게 딱 맞다. 이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닌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과 내가 합해야지 못한 것과 합하면 그것은 저주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합해야 축복이 오는 것이다. 신부는 신랑을 잘 만나야 한다. 나는 신랑은 되어 보았지만 신부는 안 되어 봤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어 버렸다. 신랑이 생긴 신부가 되어 버렸다.

수요일 간증을 하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내가 예수에게 시집가는 날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사람, 내가 영원히 공유할 사람, 내 품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사람만 알면 된다. 간단하다. 복잡한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 사람만 알면 다 아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 있다. 거기에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다 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볼 필요가 없다.

항상 말씀을 듣는데 기점이 생겼다.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나도 합해야지 하는 늘 그런 마음이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내가 알았다. 어디서 말씀하시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선포하시고 거기서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을 내가 알았다. 옛날에는 내가 교회 걱정을 별로 안했다. 교회와 내가 별 관계가 없으니까 교회가 망하든 흥하든 나와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가 없으면 내가 살 데가 없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여기에 서서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할 말도 별로 없고 뭐 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확실한 것은 내가 알고 있다. 확실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옛날에는 Out Christ, 지금은 In Christ, 지금은 가나안, 옛날에는 애굽, 옛날에는 지옥, 지금은 천국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나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이상하게 정죄함이 없다. 누가 입지가 앓다. 다 좋다. 다 나와 하나다. 다 나와 친구다.

어제 목사님 댁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유는 목사님 사진을 찍고 싶었다. 내가 의학을 하나 하고 있는데 형상의학이라고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보고 처방을 내리는데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간증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예전에는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나에게 편하게 대하는데 나 혼자 주눅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어제는 너무너무 당당한 것이다. 왜? 내가 아들이기 때문이다. 목사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 만유의 후사, 만유의 상속자이다.

그래서 그 상속받은 그 모든 것을 만물에게 만유에게 상속하고 분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영광스런 직분 안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한다.

류\*일형제에게 간증을 시키게 된 것은 훌륭한 형제라고 시키게 된 것이 아니고 한의사라고 시킨 것이 아니다. 많이 헤맸다. 하여간 많이 헤맸다. 머리는 좋아서 부산 현대고 1등 졸업생이다.

그런데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너무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다보니 정리가 안 되니까 별짓을 다 해보는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헤맸기 때문에 내가 시킨 것이다. 그러다가 가정 IMF도 만나기도 하고 상당히 시끄러운 집안이었다. 이혼 직전까지 갔던 집안이고 잠이 안 오면 술을 먹어야 잠을 자고 하던 이런 집안이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와서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사람이 확 달라졌다. 이런 맛으로 산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류\*일에게도 축복이고 우리에게도 물론 축복이다.

자세히 말을 안했는데 하여간에 우리 집에 왔는데 끝이 없이 말을 하려고 한다. 계속 하려고 한다. 나는 몸이 좀 좋아지는 좋은 약이 있는가 하는데, 자기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내가 여기서 말하는데도 큰 힘을 주었다. 어제 밤에 와서 나에게 격려가 된 것이다.

### [ 기 도 ]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항상 주님이 이런 축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가 늘 당신의 축복으로 만족하고 축복으로 찬양하고 그 축복으로 세상 앞에 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항상 주의 축복이 충만하도록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이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그 창세부터 베풀어주신 영원한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